부산을 키운 기업,
부산의 건강을 키웁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정기간행물 「부산체육」을 통한 **기업광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
더 많은 시민과 나누고자 하는 **기업광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광고문의는 051-500-7921로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을 위한
더 자랑스러운 부산의 광고,
정기간행물 『**부산체육**』과 **함께**하십시오.

부산광역시체육회

Vol. 88
2026. 03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승마협회 이창훈 회장

금빛 훈련일지
기장갈매기 씨름단

푸른 바다, 큰 꿈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부산광역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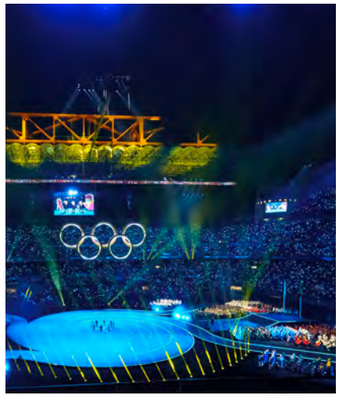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3월 16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8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03 **Vol. 88**

열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승마협회 이창훈 회장

08 금빛 훈련일지
기장갈매기 씨름단

12 부산체육을 잇다
사상구체육회

16 푸른 바다, 큰 꿈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20 Sports is Busan
-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4 스포츠&테크놀로지
집관도 직관처럼!
밀라노 올림픽을
생생하게 보여준 혁신 기술

28 스포츠&웰니스
봄철 야외활동 호흡기 질환 유의 사항

30 부산체육 DNA
부산체육 60년
한국 근대체육을 견인하다

34 스포츠 기자단
- 금정체육공원 SPO1
- 제57회 부산 MBC 전국고교 축구대회

38 종목 소개
승마

42 스포츠&컬처
영화 <1947 보스톤>

44 BSC 뉴스
-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9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48 회원단체 소식

52 센터 info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6 부산체육 퀴즈

승마,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매력

부산광역시승마협회 **이창훈** 회장

말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나 되었다는 이창훈 회장.
그는 오로지 승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작년 9월 취임 이후 많은 사람이 승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말(馬)과 교감하며 깨달은 승마의 가치

부산광역시승마협회 이창훈 회장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승마를 즐기고 있는 진정한 승마인이다. 이창훈 회장이 처음 승마를 시작한 때만 해도 승마인이 많지 않았을뿐더러 승마를 할 수 있는 곳도 흔하지 않았는데, 그를 승마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한 건 다름 아닌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었다. 어릴 적부터 토끼, 염소 등의 동물들과 자랐다는 이창훈 회장은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말'을 떠올린 것이다.

"말과 교류하다 보니 급한 성격이 고쳐졌고 인성이 개선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 말을 타며 골반, 척추에 신경 쓰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승마로 자세가 교정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반면 승마와 인성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건 승마를 위한 과정과 말이라는 생명체가 가진 특성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승마를 위해서는 말에 안장을 채우는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승마 후 말을 씻기고 마사지를 해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의 과정이 동반된다. 말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각설탕이나 당근 등 말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교감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이렇듯 승마는 단순히 말을 타는 운동이 아니라 생명체와 시간을 보내는 일인 만큼 생명체를 보살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말은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한다. 가령 말을 탄 사람의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면 말도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하므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러니 말을 타기 위해서는 단정한 마음가짐이 필수다.

"말은 거친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치에 갈림길이 보이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결정한 순간 일어나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말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말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신호 없이 갈림길에 닥쳤을 때 방향을 지시하면 말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창훈 회장은 30년 가까이 말과 함께하며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었다며 이 점을 승마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부산 승마의 현실을 직시하다

이창훈 회장이 작년에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 이유는 이러한 승마의 매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산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승마 인프라 면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

"부산에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경기장이 있으면 전국 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부산 선수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도 연습할 수 있으니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종목이나 연습 또는 대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승마의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이동해야 하기에 경비, 현지 적응 시간 등 여러 면에서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경기장이 존재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한편, 나아가서는 전국의 승마인과 관광객을 부산에 모이게 할 수 있고 이는 곧 부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창훈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제 규격의 경기장 건립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그에 앞서 이창훈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승마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 각 구·군에 승마 클럽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성과를 기념하여 말과 해변을 거니는 퍼레이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비록 구청 허가 등의 문제로 첫 퍼레이드는 무산되었지만, 이창훈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승마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마인이 슬로건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단합력이 필요하다.

"제가 만약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해관계에 얽혀 진정성을 의심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승마인'의 관점에서 승마의 저변 확대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협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부산 승마의 내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승마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소년 선도

스포츠와 인생에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창훈 회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승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퍼레이드도 그 일환으로 구상한 것이었다.

"퍼레이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메시지를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도시에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실 슬로건보다 말이 눈에 먼저 들어올 텐데 그렇게 아이들이 승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어요."

이창훈 회장은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승마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등부 장애물 및 마장마술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진로 고민이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승마협회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이창훈 회장이 승마를 접한 1998년과 비교했을 때 훈련장과 마사 시설이 확충되었고 시민과 학생이 승마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승마는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 시민들이 승마를 친숙한 스포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이창훈 회장은 여기서 더욱 박차를 가해 재활·힐링 프로그램과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부산이 '승마 도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협회, 선수와 동호인이 함께 성장하는 협회'를 지향하며 승마가 생활체육 인기 스포츠가 되는 것과 더불어 국위 선양하는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기업 등의 지원과 응원이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년 만에 재창단으로 더 뜨거운 모래판 위 땀방울

기장갈매기 씨름단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2010년 해체 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다 올해 1월 기장군으로 이전해 재창단되었다. 선수 구성 등 전력을 대폭 보강해 올해 첫 대회부터 선전하고 있는 씨름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재도약 씨름단의 사령탑, 오흥민 감독

오흥민 감독은 '기장갈매기 씨름단', '부산갈매기 씨름단' 선수로 활약하다 2024년부터 감독을 맡게 되었다.

> "기장군 소속 씨름단은 1999년 만들어졌다가 2010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 바뀌어 부산갈매기 씨름단으로 운영되었죠. 재창단 논의는 정종복 기장군수님 취임 후 2023년부터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부산과 기장 씨름협회 관계자분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올해 1월 공식 재창단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7명의 선수가 활동했는데, 재창단을 준비하며 3명을 추가 영입해 10명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얼마 전 배재환 선수가 합류해 현재는 총 11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 체급별로는 백두 1명, 한라 1명, 금강 4명, 태백 4명, 소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 "기장군 소속으로 바뀌며 군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선수가 많아지다 보니 훈련장 분위기가 더 열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 기운이 절로 납니다."

오 감독은 2024년 감독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플레잉코치로서 선수 생활을 했기에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의 지도자다.

기술, 근력, 체력이 모두 중요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해운대구 씨름장, 서구 꽃마을 씨름장을 번갈아 오가며 훈련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씨름부와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씨름단은 현재 금강·태백 체급의 선수층은 두텁지만 그 외 체급의 선수들은 훈련 파트너가 부족하다 보니 동아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파트너 보강, 전력 체크 등을 하고 있다.

> "씨름이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기술 외에도 체력과 근력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오전, 오후 모두 씨름 훈련을 주로 하되, 사이사이에 근력과 체력 훈련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훈련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학에서 2시간 넘는 운동은 피로도를 높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지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 체력을 충분히 다졌더라도 막상 씨름에서는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씨름 훈련 때 기술과 체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열렸던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급 박동환 선수, 태백급 이병용 선수가 입상하며 씨름단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금은 4월에 열리는 전국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열심히 훈련 중이다.

"씨름이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선수들이 방어에 치중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훈련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씨름을 비중 있게 다루면 경기장에 팬들이 확실히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방송국에서 씨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도자에서 다시 선수로, 이승호 선수

금강급 이승호 선수는 올해 1월 씨름단이 재창단되며 입단하게 되었다. 씨름 경력 30년이라는 설명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 외모를 가진 그는 오랜 기간 선수로 활동하다 얼마 전까지 대구에서 씨름 지도자로 지내고 있었다.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선수로서 모래판 위 승부를 펼쳐보고 싶다는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교 씨름부 감독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한 친구가 씨름부에 들어가면 마음껏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죠. 씨름부에서 축구라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시작은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씨름이 제 운명이었는지 여러 기술이 술술 습득되었고, 좋은 성적을 계속 내다보니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오다

이승호 선수는 금강장사 9회, 통합장사(두 체급 통합) 1회 등 무려 10회의 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열심히 한 이유도 있었지만, 긍정적 마인드도 한몫했다. 훈련에 집중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 실망한 날도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곧 지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순간의 부정적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고, 항상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온 것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를 이기고 위에서 내려다볼 때 엄청난 희열감이 느껴졌어요. 훈련이 쉽진 않았지만 승리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에 계속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은 상대방 신체에 타격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 기술로 승부하는 스포츠입니다.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고,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올해 팀이 재창단하면서 저도 선수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예전의 감각을 되찾는 데 집중하고,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대회 입상, 박동환 선수

박동환 선수는 씨름단 내 유일한 한라급이다. 그는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5위로 입상하며 재창단 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씨름을 한 지는 이제 23년 되었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승호 선수와 비슷하다.

MINI INTERVIEW

기장갈매기 씨름단
권기혁 단장

2010년 기장군 씨름단이 해체된 이후 씨름단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명맥을 '기장'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가고자 군민의 염원을 담아 15년 만에 씨름단을 재창단하였습니다.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15년 만에 재창단한 만큼 단순한 실업팀이 아닌 군민의 응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팀입니다. 또한 기장군이 운영 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선수층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충하였으며, 오흥민 감독과 주장 김명기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와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것이 강점입니다.

앞으로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씨름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지역체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체육』 독자 여러분께 우리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워낙 크다 보니 멀리서도 눈에 띄었어요. 씨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햄버거의 유혹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재미도 있고 결과도 좋다 보니 계속하게 되었죠."

박 선수는 2014년 부산갈매기 씨름단에 입단해 재창단까지 함께했다. 요즘 그가 훈련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당기는 근력'이다. 키가 크다 보니 팔다리도 길어서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씨름 훈련 시간에는 항상 잡아당기는 힘을 생각하며 기술을 사용하고, 근력 훈련을 할 때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찰나에 뒤바뀌는 승부의 짜릿함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박동환 선수는 강한 체력이 강점이다.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세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집에 가면 저절로 체력 훈련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제가 출전한 경기를 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지어 기술 조언까지 해주고 있어요. '아빠,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조언을 들으면 웃음이 날 때도 있지만 호응해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박 선수가 생각하는 씨름의 매력은 상대와 직접 살을 맞대고 하는 운동이기에 서로의 작은 움직임까지 읽고 판단해 순간적 승부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래판에 머리카락 끝만 닿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세와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찰나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씨름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재창단 첫해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을 따라

오늘도 달린다

사상구체육회

낙동강을 따라 들꽃이 화사하게 핀 길을 걸어보자. 삼락생태공원의 꽃향기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에 한 번 취하게 될 것이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다.

마라톤 외에도 사상은 파크골프, 축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의 집합지이다. 이곳을 생활체육의 집합지로 가꾼 곳은 다름 아닌 사상구체육회. 구민들의 체력 증진 및 활력을 위해 쉼 없이 뛰어다니는 사상구체육회의 나날을 잠시 엿보았다.

Q. 사상구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상구체육회는 구민들이 원만하게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구만의 공간으로는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에서 건강 증진은 물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상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주세요.

탁구, 배구, 테니스, 필라테스 등 다양한 종목을 수준별·대상별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이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언제나, 가까이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Q. 사상구체육회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국사상에코마라톤'입니다. 이 대회는 부산시 구·군 체육회 중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추진 중인 마라톤 대회로, '친환경' 콘셉트를 바탕으로 '삼락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Q. 사상구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엄궁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엄궁유수지는 사상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태 습지로,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이 공사 중이며 실내 워터파크,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Q. 대표적인 회원단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상구에는 게이트볼, 국학기공,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크골프가 '2025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두주자가 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사상구체육회가 추구하는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 모두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에게 남기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체육입니다. 사상구체육회는 구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상구 체육 문화를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체육 활동을 원한다면, 망설임 없이 사상구체육회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라겠습니다.

SASANG-GU

MINI INTERVIEW

강진태 회장

안녕하십니까, 사상구체육회 회장 강진태입니다.

현재 사상구체육회가 형성되기 전까지, 많은 파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은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되던 초창기입니다. 제도와 조직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뒤따르던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혼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상구체육회는 임직원들의 땀으로 일구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전국사상에코마라톤'을 기획, 개최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상구의 자산인 삼락생태공원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대회로, 많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지금까지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라톤을 좋아해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육상 종목을 무척 좋아합니다. 육상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체육으로는 더없이 완벽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상구체육회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체육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상의 자랑인 삼락생태공원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등 일상에 체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랍니다.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사상구체육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힘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구체육회는 사상구를 체육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트 위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전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매트 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이제 막 신설된 팀이지만,
도복 위 매듭을 잡은 선수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하다.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1기'로 출발선에 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선물 같은 팀 결성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창단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진성 지도자는 고교 시절 은사였던 마석황 교장을 찾아 학교를 방문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 여자 유도부의 현실을 이야기하게 됐고, 마석황 교장으로부터 긍적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 "솔직히 얼떨떨했습니다. 지도자로 오래 있었지만, 신설 팀을 꾸린다는 건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기회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보고 유도의 매력에 빠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유도를 전공한 그는 현재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 창단을 추진하며 무보수로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학교가 큰 결단을 내려주었는데, 제가 조건을 따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는 총 9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온 학생들과 체육관에서 유도를 시작한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지만, 이 지도자는 그 선수들의 '선택'에 의미를 둔다.

>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유도부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운동은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유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확신합니다."

훈련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교내에서는 기초 체력과 근력 훈련을 중심으로 몸을 만들고, 방과 후에는 대학 여자 유도팀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대학 선수들과의 훈련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다.

> "강한 상대와 부딪혀봐야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대학팀과 함께 훈련하면 기술 하나, 버티는 힘 하나가 다르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죠."

성적보다 중요한 건 인성

이진성 지도자는 '인성'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는 선수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가르치고 싶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GYESUNG GIRLS' HIGH SCHOOL JUDO

> “성적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유도는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도 많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예민해지죠. 그럴 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난 뒤 서로의 장비를 챙겨주거나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도 그는 그런 변화를 느낀다.

> “우리 아이들의 강점은 일단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줍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신설된 팀으로서 올해 목표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기보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 “선수들 대부분이 1학년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입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경험이 2학년, 3학년 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유도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자친구보다 유도를 더 사랑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훈련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미니 인터뷰 mini interview

마석황 교장

교직 생활 동안 운동부를 지도한 경험이 있어 엘리트 체육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부산에 여자 유도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창단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침 저의 제자이기도 한 이진성 지도자와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제 막 출발한 팀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성여자고등학교 유도부가 실력과 예의를 모두 갖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메칠 때의 희열, 국가대표라는 꿈 박혜원 선수 1학년 - 57kg급

박혜원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유도를 접했다. TV로 국가대표 경기를 보며 막연히 품었던 동경이 그를 매트 위로 이끌었다. 그가 좋아하는 선수는 국가대표 안바울 선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과감한 공격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박 선수 역시 공격적인 스타일을 자신의 강점으로 키워가고 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업어치기를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유도의 매력을 묻자 그는 ‘희열’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투기 종목 특유의 짜릿함 때문이라고.

“상대를 정확하게 메쳤을 때 느끼는 순간적인 희열이 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합니다.”

체급 경기 특성상 같은 체급의 훈련 파트너가 부족하다는 점 등 신설된 팀 1기로서의 어려움과 부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해야 후배들도 믿고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가까운 목표는 전국 대회 개인전 입상이다.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는 목표도 분명하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좋은 지도자님들 밑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승부, 세계 무대를 향해서 최효주 선수 1학년 - 48kg급

최효주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도를 시작했다. 엘리트 선수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로, 비교적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만큼 유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그의 롤모델은 일본의 세계적인 유도 선수 아베 우타다.

“큰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작은 체구의 선수에게서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가 말하는 유도의 가장 큰 매력은 ‘예의’다.

“경기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면 반드시 예의를 갖춰 상대 선수에게 인사를 해요. 배려와 존중이 정말 멋진 스포츠입니다.”

이어서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을 묻자 최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업어치기와 소매를 활용한 변형 기술’을 꼽으며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엘리트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체력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하려고 해요. 목표는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무대 정상에 서고 싶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어린 선수지만, 그의 열정과 시선은 이미 세계 무대를 향해 있다.

본조르노(Buongiorno)!

세계인의 설상 대축제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눈밭을 가르고 빙판 위를 미끄러지며 저마다의 드라마를 펼치는 올림픽.
올해는 이탈리아에서 눈부신 이야기를 그려 나갔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효자 종목으로 알려진 쇼트트랙, 예상을 깨고 역전극을 펼친 스노보드 등의 종목이 우리에게 감동을 물씬 안겨주었다. 태극전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17일간의 여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태극전사들의 열혈 투혼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 '톱 10'을 목표로 출전했다. 심석희, 김길리, 차준환 선수 등 강력한 선수들이 메달권 진입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 결과 순위는 비록 13위에 그쳤지만, 쇼트트랙과 스노보드에서 금 3개, 은 4개, 동 3개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그중 쇼트트랙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오르며 MVP로 선정됐다. 전설로 불리는 최민정 선수는 한국 선수 중 동·하계 올림픽 합산 역대 최대 메달을 기록했다.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

스포츠에서 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는 부상 투혼으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결선 첫 번째 시기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 시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기, 최가온 선수는 눈밭 위를 날아올랐다. 금메달이 그의 목에 걸리는 순간이었다.
컬링 역시 드라마틱했다. 김은지, 김민지, 설예지, 설예은, 김수지 선수로 이루어진 여자 컬링 대표팀 '5G'는 미국, 덴마크에 패배했지만, 일본, 중국에 승리하는 등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를 보여 주었다.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캐나다에 패배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팀 5G는 올림픽만이 줄 수 있는 짜릿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10대들이 온다!

이번 올림픽은 자라나는 새싹인 10대의 출진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최가온 선수 외에도 쇼트트랙 팀의 막내, 임종언 선수는 결승전 내내 뒤처져 있었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이며 3위에 올랐다. 쾌감 넘치는 막판 뒤집기로 획득한 값진 동메달이다.
스노보드의 유승은 선수 경기에서도 최가온 선수 경기와 같은 명장면이 펼쳐졌다. 유승은 선수는 네 바퀴 회전을 하는 고난도 기술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이는 한국 스노보드 최초의 동메달이자 프리스타일 종목 첫 입상이라는 뜻깊은 기록이기도 하다.
이들의 값진 도전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밝은 미래의 암시와도 같다. 올림픽의 불꽃은 계속된다. 4년 뒤, 새로운 올림픽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한다.

19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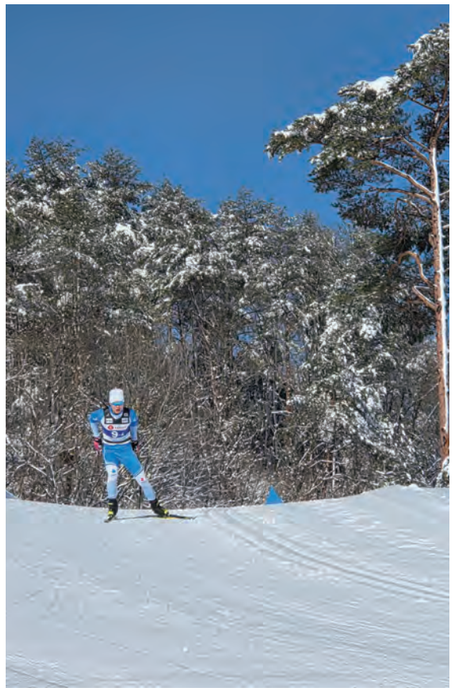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선수단은 260명(선수 162명, 지도자 및 임원 98명)이 참가하여 총 36개(금 10개, 은 12개, 동 1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종합득점 524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544점) 이후 최고 득점 및 참가 이래 두 번째 최다 득점이다. 부산은 이로써 19년 연속 종합 5위 및 6대 광역시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월 12일부터 사전경기를 진행,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본 대회가 진행되었다.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으며, 부산선수단은 6개 종목(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에 출전하였다.

첫 금메달은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나왔다. 클래식 2.5km 여자 초등부의 오신비 선수(광남초)와 클래식 5km 여자 일반부의 이의진 선수(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 4관왕에 오르며 부산선수단을 견인하였다.

전년도 다관왕 선수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선수단은 스키 종목을 필두로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등의 종목에서 활약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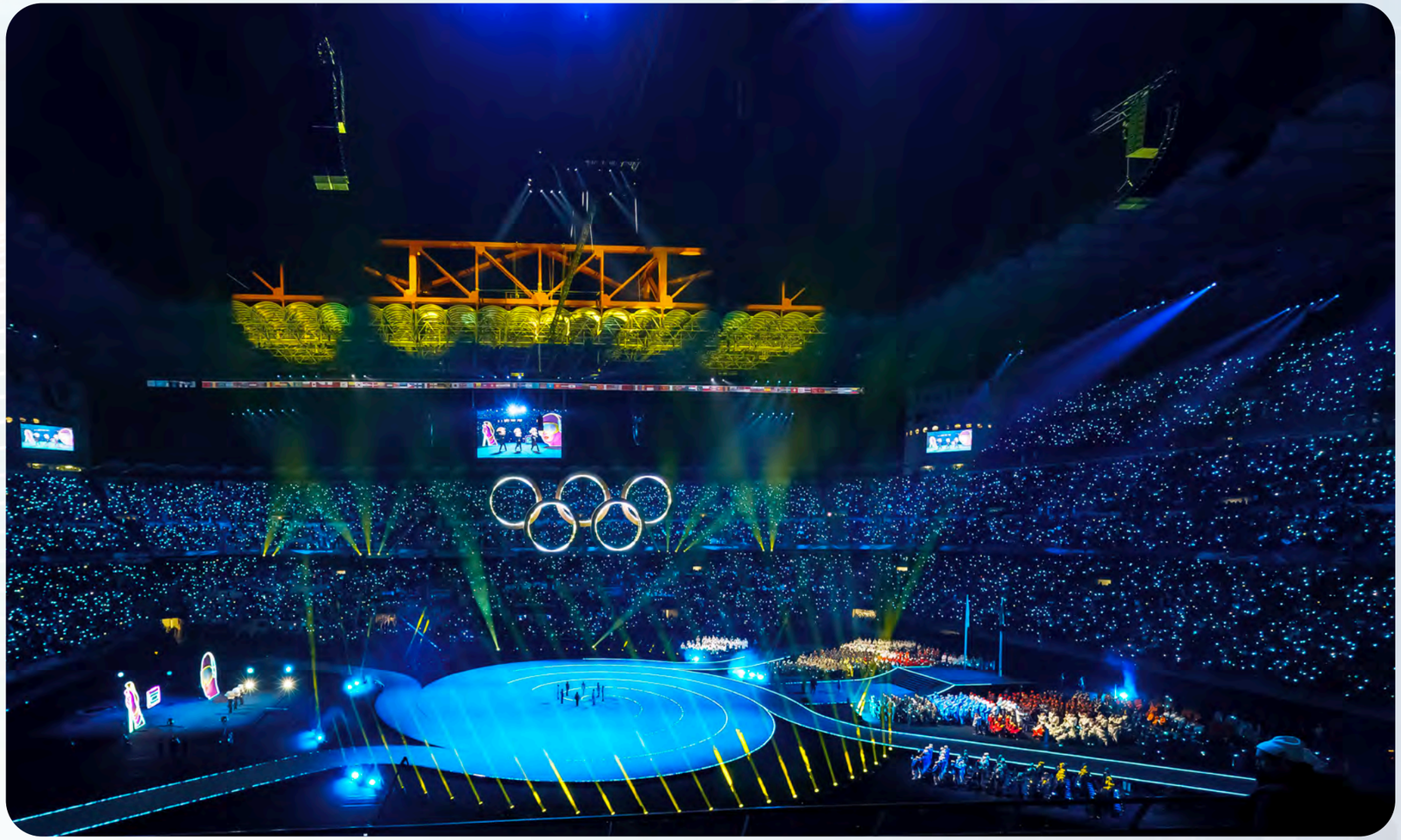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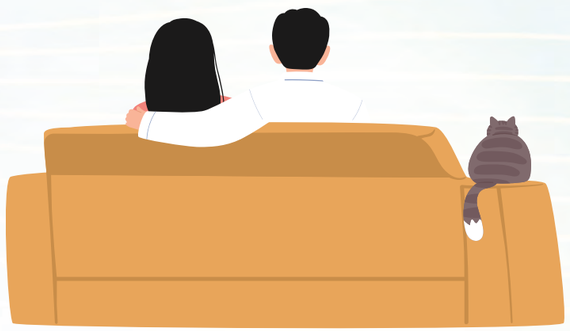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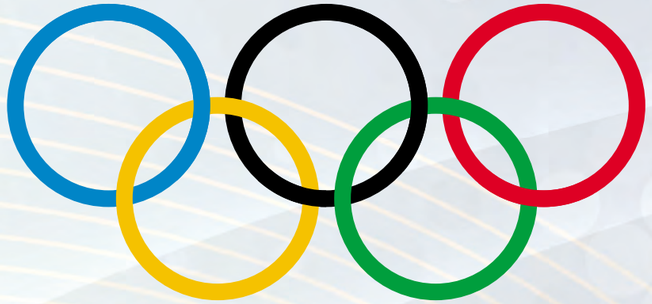
메달	구분	종목	세부	부별	성명	소속
금	1	빙상(쇼트)	1,500m	남대	이규호	한체대
금	2	크로스컨트리	클래식2.5km	여초	오신비	광남초
금	3	크로스컨트리	클래식5km	여일	이의진	부산광역시체육회
금	4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	여일	이의진	부산광역시체육회
금	5	크로스컨트리	프리3km	여초	오신비	광남초
금	6	크로스컨트리	복합	여초	오신비	광남초
금	7	크로스컨트리	복합	여일	이의진	부산광역시체육회
금	8	크로스컨트리	20km 계주	남중	서승민 등 4명	부산 선발
금	9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1.2km	여일	이의진	부산광역시체육회
금	10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0.7km	여초	오신비	광남초
은	11	빙상(쇼트)	2,000m	여초	김지안	용문초
은	12	빙상(쇼트)	3,000m	남대	이규호	한체대
은	13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남중	박민건	장평중
은	14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남초	박지성	센텀초
은	15	크로스컨트리	클래식2.5km	여초	조슬기	광남초
은	16	크로스컨트리	클래식5km	남중	서승민	부산광역시스키협회(중)
은	17	크로스컨트리	복합	여초	조슬기	광남초
은	18	크로스컨트리	복합	남중	안진휘	신도중
은	19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	남중	장우재	신도중
은	20	바이애슬론	22.5km 계주	남대	문준협 등 3명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대)
은	21	크로스컨트리	6km 계주	여초	오신비 등 3명	광남초
은	22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1.2km	남중	김성찬	신도중
동	23	빙상(스피드)	6주	여고	김태희 등 3명	부산 선발
동	24	빙상(쇼트)	500m	여대	박지유	경희사이버대
동	25	빙상(쇼트)	2,000m 계주	남초	김민준 등 4명	부산 선발
동	26	컬링	단체전	남고	김대현 등 5명	건국고
동	27	크로스컨트리	클래식5km	남중	안진휘	신도중
동	28	스키(알파인)	대회전	남중	김기영	해운대중
동	29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	남중	최지웅	신도중
동	30	스키(알파인)	대회전	여일	강영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동	31	크로스컨트리	복합	남중	장우재	신도중
동	32	스키(알파인)	회전	여일	강영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동	33	스키(알파인)	복합	여일	강영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동	34	크로스컨트리	30km 계주	남일	김영규 등 4명	부산광역시체육회
동	35	크로스컨트리	15km 계주	여일	이의진 등 3명	부산 선발
동	36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0.7km	여초	조슬기	광남초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성적

구분	경기	서울	강원	전북	부산	인천	충북	대구	전남	충남	경북	광주	세종	경남	대전	울산	제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득점	1,611	1,037.5	921	628	524	448	414.5	409	304	217	209	195	173	153	151	103	88
메달(계)	332	152	112	54	36	34	29	18	30	22	8	1	10	10	0	10	1
금	118	59	32	13	10	7	4	7	14	8	3	0	5	4	0	1	0
은	107	41	41	24	12	12	8	4	10	9	3	0	4	3	0	5	0
동	107	52	39	17	14	15	17	7	6	5	2	1	1	3	0	4	1







집관도 직관처럼!

밀라노 올림픽을 생생하게 보여준 혁신 기술

눈부신 설원, 선수들의 땀과 눈물, 메달 너머의 드라마까지. 밤잠을 설치게 했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뒤로 하고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에 올랐다. 기록이 증명하는 집념과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더해져 쉽게 가시지 않는 여운까지 남겼다. 서울에서 약 9,000km 떨어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의 감동을 집에서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혁신 기술의 역할이 컸다.

그 많은 눈은 어디에서 왔나?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한판 승부를 펼치는 동계올림픽에서 절대 없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동계스포츠의 무대가 되는 눈이다. 그렇다면 밀라노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일까?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는 겨울철 눈이 내리긴 하지만 '눈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코르티나담페초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해 겨울 강설량이 풍부하고 스키 리조트로도 유명하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치른 셈이다. 특히 밀라노의 경우 애초에 강설량도 부족한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설 확보가 쉽지 않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이탈리아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인공눈.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의 경기장을 가득 채운 눈의 비밀은 '저장'과 '제조'다. 먼

저, 스노파밍(snowfarming)은 자연설을 끌어모아 언덕을 만든 다음 단열재를 덮어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이다. 눈이 공기와 닿는 면적을 줄이는 원리로, 열전도율이 낮은 톱밥이나 우드칩을 사용한다. 스노파밍으로 보관한 눈은 한여름에도 쓸 수 있다. 한쪽에서는 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공장, 스노팩토리(snowfactory)도 가동한다. 스노팩토리는 간단히 말해 컨테이너 안에서 얼음을 먼저 만들고 이를 눈으로 다시 변화시킨다. 얇고 납작한 얼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인칭 드론 중계, 가까이 그리고 더 빠르게

새하얀 눈 위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자태는 빛나 보이기까지 한다.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고 싶다면? 이제는 현장만이 답은 아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집관(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직관처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도입된 FPV(First-person View) 1인칭 드론 중계 덕분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안겨줬던 김상겸 선수와 전 국민을 울린 강철 멘털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경기 또한 드론 중계가 살린 속도감으로 더 큰 감동을 전했다.

밀라노 올림픽 중계에 사용된 1인칭 중계 드론은 모두 25대로, 조종사·감독·기술자가 한 팀을 이룬다.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 조종사들이 투입되며, 스키 점프 종목은 선수 출신 조종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마치 선수처럼 고글을 쓴 조종사들은 경기 트랙에서 수십 번 비행 연습을 하며 동선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스켈레톤과 같은 썰매 종목을 비롯해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등 야외 종목에서 드론 중계가 적용됐다. 이전에 선보인 드론 중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 시속 150km의 선수를 1m 이내로 따라가며 촬영한다는 사실이다. 경기장을 넓게 비추는 것과 달리 선수와 평행하게 이동하면서 선수의 빠른 속도감을 그대로 살린다. 다행히 드론 추락과 같은 불상사 없이 올림픽 첫 1인칭 드론 중계가 마무리됐다.

오심 줄이는 테크

종목을 막론하고 속도전이 펼쳐지는 동계올림픽에서는 매번 오심 논란이 반복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위가 뒤바뀌고, 0.0001초 차이로 메달 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선수들 간 속도 경쟁과 몸싸움이 치열한 쇼트트랙은 경기 특성상 오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심, 부심을 비롯해 투입되는 심판의 수만 8명에 이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편파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지난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고, 확대되는 추세다. 2022 베이징올림픽 당시 8대였던 카메라는 이번 대회에서 15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 OBS가 제공하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의 영상으로 판정의 오차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 K-모니터가 설치된 점은 새삼 흥미롭다. 삼성전자 뷰피니티 S8 모니터가 자리했다. 37형 크기인 이 모니터는 4K UHD(3840×2160) 해상도로 16 대 9 화면비를 갖췄다.

동계올림픽의 꽃, 피겨스케이팅에서도 오심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회전 수와 점프 높이 그리고 예술 점수까지 사람이 모두 채점하기 때문이다. 밀라노에서는 어땠을까? 심판의 판정을 도와주는 AI가 첫선을 보였다. 피겨스케이팅 경기장 주변에는 초당 4만 장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14대가 설치됐고 AI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거리, 회전 수, 회전 속도, 점프 높이, 체공 시간, 날의 각도와 위치 등을 정밀 측정했다. AI가 선수의 기술력을 세밀하게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심판은 선수의 예술성 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판의 오심 가능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AI 심판 보조'는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는 정식 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 판정은 여전히 인간 심판의 몫이었다. 다만 이르면 올 시즌 후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관 대회부터 AI 심판 보조가 경기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심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선수가 반칙 여부를 스스로 고백하여, '신사의 스포츠'라고 알려진 컬링에서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기술적 결함과 배터리 문제로 적용이 무산됐던 전자식 핸들이 재등장한 것. 스톤의 손잡이에 장착된 터치 센서로 호그 라인(스톤을 놓아야 하는 선)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적법한 투구일 때는 녹색 조명이 켜지고, 늦은 투구의 경우에는 적색 조명이 들어온다. 여기에 AI 기반 스톤 추적 기술도 더했다. 스톤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AI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스톤의 궤적과 속도를 측정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인공눈을 재료로 설원의 무대를 만들고, 실감 나는 경기 관람이 가능하도록 중계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다. 뛰는 선수와 지켜보는 관중 모두를 안타깝게 만드는 오심은 그 가능성부터 줄여 나가는 중이다. 이렇듯 과학은 올림픽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있지만, 스포츠가 주는 감동까지 계산하지는 못한다. 0.98점 차로 메달을 놓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국가대표 차준환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한치의 후회 없이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성적을 넘어선 한마디는 메달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어쩌면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세계 신기록이 아닌 위대한 선수를 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에취!

갑질갑질한 봄은 이제 그만

봄철 야외활동 호흡기 질환 유의 사항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
봄이 되면 함께 돌아오는 노래다.
그러나 이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벚꽃잎이 흩날린다는 것은 동시에 꽃가루도 함께 날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울려 퍼지는 노래와 더불어
코 삼키는 소리, 재채기하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벚꽃이 완연한 봄을 고통스러운 호흡기 질환 없이 즐길 수 없는 걸까?
호흡기 질환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여 건강한 봄날을 나도록 하자.

봄철 호흡기 질환의 주범을 찾아라!

봄은 아름다운 풍경 뒤로 퀴퀴한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숨기고 있다. 봄철 환절기에는 이것들로 인해 공기가 탁해지며,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무 꽃가루가 주원인이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비염과 결막염이다.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은 재채기, 콧물과 함께 두통을 일으킨다. 꽃가루가 콧속에서 염증을 일으킨 탓인데, 염증이 12주 이상 지속될 경우 후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교차가 커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기도 쉽다. 심화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고령층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자료 출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블로그, 경희의료원 공식블로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건강하게 벚꽃길 걷기

봄철 호흡기 질환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칫 큰 위험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에 예방하여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외출 시에는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쬔다고 가볍게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해야 한다.

봄철 환경상 문제로 코와 입 등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외부로부터 각종 이물질이 유입되어 쉽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음료수보다는 생수가 권장된다.

꽃가루뿐만 아니라 황사도 봄철의 골칫거리다.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좋은데, 타인의 옷, 신발, 물건 등에 묻어있던 먼지가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우리의 눈, 코, 입을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다.

실내에서도 방심은 금물

실내에도 호흡기 질환의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다. 대부분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람이 오가며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에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순환시켜야 한다. 물론 꽃가루나 황사가 심하게 날리는 시기에는 외부 환경이 더 좋지 않으므로 창문을 닫아 주어야 한다.

공기를 통한 오염 외에도, 손을 통한 오염도 주의해야 한다. 오염된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면 자연스럽게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은 뒤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호흡기 질환의 주범들.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막아낼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봄은 따사로운 햇살과 향긋한 꽃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멋진 계절로 변모할 것이다. 이제 두꺼운 옷을 한 꺼풀 벗어던지고 봄꽃 구경을 나서보자. 봄을 향해, 하나, 둘, 셋, 뛰어!

봄철 야외활동,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 얇은 옷 겹쳐입기
- ☐ 수분 섭취 충분히 하기
- ☐ 황사 오존경보 주의 기울이기
- ☐ 실내 환기 자주 하기
- ☐ 외출 후엔 꼭 손 씻기

부산체육 60년
한국 근대체육을 견인하다

1992년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부산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오던 '동래줄쌈'에 동원된 인원이 무려 2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부산 인구가 60만 명 남짓이었음을 고려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스포츠 축제에 몰입했던 셈이다. 이 단편적인 기록은 부산이 오래전부터 체육과 공동체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날 부산이 '생활체육 천국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대를 이어 내려온 부산 특유의 뜨거운 동지애와 에너지가 그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 출처: 부산체육 50년사

근대체육의 태동과 부산의 체육

3·1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전인 1919년 2월 18일, 일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체육협회를 설립, 조선총독부의 공인 민간 체육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민족 청년·소년·여성운동 각 분야 인사들은 1920년 6월 16일 조선체육회를 창립했다. 당시 조선체육회는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라 체육을 매개로 한 민족운동·항일운동 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이후 조선체육회는 국내 전 지역 체육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역 체육회 결성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부산 지역에서도 동래(동래체육회), 부산진(부산체육회), 수정(수정체육회), 초량(중앙체육회), 대신동(서부체육회), 영도(영도체육회) 등 6개 단체가 설립됐다.

1930년대까지 6개 단체로 개별 운영되던 부산 지역 체육회들은 1934년 무렵 '부산체육회'로 통합, 지역 내 체육인들과 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대륙침략의 거점이었던 부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 서구 문화와 문물이 많이 거쳐간 국제도시였는데, 스포츠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야구와 축구 등의 구기 종목이 일찌감치 자리 잡으며 조선 체육의 구도(球都)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후 일제의 노골적 탄압에 못이겨 조선체육회가 조선체육협회에 흡수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조선체육회가 재건되었고 1945년 10월 27일에는 해방 조국의 첫 번째 전국종합경기대회가 막을 올렸다. 한편 조선체육회 재건에 발맞춰 지역 체육회 창립도 이어졌다. 항구도시 부산에서도 1945년 11월 부산체육회를 전격 출범했다.

당시 부산은 경상남도 소재지였기 때문에 경남체육회 출범으로 존재 의의가 희미해지기도 했으나, 1957년 제38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부산체육의 저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직할시체육회 출범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1963년, 부산이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고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체육회의 발족이 진행, 부산직할시장이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에 지역 체육인 및 관계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28일 첫 모임을 가졌고 3월 17일 부산직할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범 당시 부산직할시체육회는 총 27개 종목의 경기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 가맹 경기단체들은 산하에 초·중·고등·대학교 등 각급 264개 학교팀과 43개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1963년 5월에는 직할시 승격 이후 첫 대규모 대회인 제1회 부산시종합체육대회를 성료했다. 1963년 10월에는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26개 종목, 1,5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32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12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 4위를 기록하였고 이듬해 열린 제4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부산직할시체육회는 출범 당시 제정한 규약에서 이미 '체육운동을 범국민운동화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는 엘리트 체육인 양성은 물론 지역 내 사회체육 활성화에도 활동 목적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체육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시민 체위 향상을 연간 사업의 주요 목표로 두고 부산시민대운동회, 직장인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경기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을 장려했고 매년 5월 첫째 주로 지정된 전국체육주간에는 스포츠사진전, 스포츠영화 상영회, 시범경기 개최 등의 체육 활동을 진행했고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회보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스포츠의 도약과 부산체육의 기여 (1980년대)

1980년대는 바야흐로 한국 체육계의 황금기라고 할 시기였다. 1986년 개최된 86 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40여 년은 물론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대업이라고 할 만했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딛고 쌓은 저력과 가능성을 선보일 기회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86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준의 경기 시설과 대회 운영 능력을 선보였고 체육 인프라 면에서도 탈아시아급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2년 후 개최된 88 올림픽대회는 1972년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이후 12년 만에 동서진영이 동시에 참가한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이 선수단에겐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했다. IOC 167개 회원국 중 160개 국가가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됐고, 23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 2개 전시종목에 참가한 선수단은 총 13,600여 명에 달했다. 한국은 전 종목에 걸쳐 477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는데, 이는 탁구, 양궁, 핸드볼 등의 종목에서 부산 출신 선수들이 활약한 덕분이기도 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은퇴 체육인들을 파견해 각 종목의 효율적이고 매끄러운 운영에 기여했으며 특히 요트 종목은 부산에서 개최돼 해양도시 부산의 면모를 한껏 봄낼 수 있었다.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 (2000년대)

부산은 과거 60~70년대 국가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경제 부문에서 활기가 넘쳤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비율이 6~7% 수준에 그쳤다. 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기에 부산은 개항 이래 최대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를 앞두게 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치르게 된 월드컵이자 역사상 최초의 공동개최 대회인 2002 한일월드컵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었다. 부산 출신의 건축가 고 장세양 씨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성된 경기장은 내부 시설뿐 아니라 수려한 외관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더욱이 사상 최초 16강 진출을 노리던 한국대표팀의 첫 경기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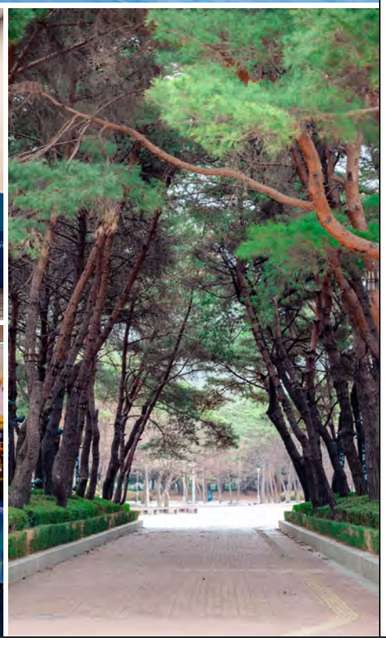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02 부산아시아 경기대회도 개막했다. 400만 부산 시민과 40억 아시아인들이 7년 여를 기다려온 대회의 개막식 테마는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우리나라는 38개 종목 가운데 카바디를 제외한 37개 종목에 1,007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켰고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16년 전인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성적(금 93, 은 55, 동 76)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였다. '희망과 도약, 새로운 아시아'라는 대회 이념과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대회는 자칫 부산만의 축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2002 한일월드컵을 발판 삼아 온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은 부산이 단순한 항구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한 황금기였다. 당시 구축된 수준 높은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 의식은 오늘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뜨거웠던 함성은 일상 속 생활체육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산은 그날의 영광을 동력 삼아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의 스포츠 정신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

금정체육공원 SPO1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정체육공원은 지역 내 대표적인 스포츠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 대표 생활체육 공간인 금정체육공원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금정체육공원은 풋살장, 테니스장과 같은 야외 스포츠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 공간도 잘 갖춰져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산 경륜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경륜 경기를 비롯해 사이클 관련 체육 활동, 각종 행사 등이 열린다. 경륜장은 금정체육공원을 부산 동부권의 대표적인 스포츠 복합단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며, 덕분에 금정구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공존하는 부산의 주요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금정체육공원의 스포츠센터 2층에서는 수영장과 유아 체육 시설을, 1층에서는 실내 골프와 휘트니스를, 지하에서는 탁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면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동호회 회원들로 활기를 띤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체육공원 내에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다. 특히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금정체육공원은 운동뿐만 아니라 걷기에도 제격이다. 공원 곳곳에 조성된 산책로는 나무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있다. 금정체육공원은 자전거 타기에도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어 개인 장비가 없어도 자전거를 대여해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금정체육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금정체육공원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건강한 커뮤니티의 장으로도 역할하고 있다. 각종 생활체육 대회와 지역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과 스포츠,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금정체육공원은 부산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땀과 미소로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

제57회 부산 MBC 전국고교 축구대회 성공적 개최,

청소년 축구의 열정과 미래를 밝히다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양하람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일광 월드컵빌리지와 정관 스포츠힐링파크에서 열린 '제57회 부산 MBC 전국고교 축구대회'는 전국 각지의 42개 팀이 참가해 그 열기를 더했다. 부산 지역 9개 팀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인 젊은 축구 영웅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친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한 청소년 축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경기 방식은 예선 리그 결과 각 조 1, 2위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조별 순위 결정 방식은 승점-승자승(해당 팀 간)-타이브레이크-골 득실(전체 경기)-다득점-페어플레이-추첨 순으로 결정되었으며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40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팀들은 승리를 위해 대회 초반부터 치열한 전술 싸움을 펼쳤고, 경기 하나하나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국에서 모인 젊은 선수들의 자신감과 에너지가 현장을 가득 메웠으며, 매 경기 선수들의 기술과 전략, 정신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어졌다. 지역 명예를 걸고 열심히 싸운 부산 9개 팀도 부산의 축구 저력을 과시하였다.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는데, 특히 결승전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서울 장훈고와 보인고가 맞붙은 결승전에서는 경기 내내 치열한 공격과 방어, 빠른 전환 플레이와 눈부신 개인 기술이 어우러져 고교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경기 결과 4 대 2로 장훈고가 승리를 거두며 관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축구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다. 한 팀당 11명, 총 22명의 선수가 넓은 필드를 누비며 골을 넣기 위해 전략과 체력을 겨루는 축구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축구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협동,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중요한 무대이자, 미래 프로선수의 꿈을 키우는 산실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산 및 전국 고등학교 축구는 한층 더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참가 팀 모두가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경험하며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

제57회 부산 MBC 전국고교 축구대회는 끝났지만, 선수들이 이룬 성과와 감동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 축구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축구는 한 사람의 축제이자 모두의 스포츠이다. 청춘의 땀과 열정이 만든 이번 대회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축구 팬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명경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축구대회는 단순한 승패 경쟁을 넘어 선수들 간의 우정과 팀워크를 다지고 스포츠맨십이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중에게는 국내 청소년 축구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수천 년 시간을 건너온
가장 우아한 교감

승마

HORSEBACK RIDING

거친 숨소리와 힘찬 발구름. 인류가 문명을 일구어온 이래 말은 언제나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때로는 거친 전장을 함께 누비는 전우로, 때로는 먼 길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래된 인연은 이제 '스포츠'라는 이름의 예술로 발전했다. 인간과 말, 말과 인간이 일체되어 대지를 가르는 경험. 그 짜릿하고도 따뜻한 세계를 소개한다.

승마의 역사

EQUSUS. 말을 칭하는 라틴어다. 어원은 EQUINE으로 '말과 함께 하는, 말에 관한, 말의'라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객체로서의 말을 칭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동반자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승마는 생명이 있는 말과 일체가 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스포츠로 예로부터 신체를 단련하고 기사도 정신을 함양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는 종목으로 인식됐다.

고대 승마는 주로 문명의 발생지에서 발달했는데, 기록을 보면 유럽에서 승마를 시작한 것은 그리스인이 최초이다. B.C 680년경 제25회 고대올림픽에 등장한 4두 마차의 경주가 최초의 승마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승마는 일부 귀족의 스포츠로 성행했지만 차츰 간소화되어 근대 스포츠로 발전했고, 1912년 세계 승마계를 통합하는 단체로 국제마술연맹이 파리에서 창립되었다.

물질문명에 찌들어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은 고대로의 회귀를 갈망하며 과거를 상징하는 말과 함께하는 운동인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2회 파리올림픽경기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승마의 종목

승마는 마장마술(Dressage), 장애물 비월(Show jumping)을 비롯해 종합마술(Eventing), 지구력(Endurance), 마차(Driving), 마상체조(Vaulting), 레이닝(Reining) 등이 있다. 국제경기에 채택되어 주로 접할 수 있는 종목은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율이다.

자료출처: 대한승마협회

마장마술(Dressage)

마장마술은 길이 60m, 폭 20m의 직사각형 경기장에서 열리며 규정된 구분 동작의 정확성, 연계 동작의 자연스러움, 추진 운동의 경쾌함, 말의 유순한 자세 등을 종합 관찰하여 채점한다.
마장마술의 목적은 조화로운 교육을 통한 말의 기량 향상과 선수의 행복이다. 최종적으로 말은 침착하고 부드럽고 유연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세심해져 선수와 완벽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장마술 체크포인트

- 자유로우면서 규칙적인 걸음걸이
- 조화롭고 경쾌하며 편안한 움직임
- 활달한 추진에서 나오는 앞다리의 경쾌함과 후구(동물의 뒷부분, 하반신) 동작의 연결
- 긴장이나 저항이 없는 말의 복종과 안정적으로 재갈을 착용한 모습

마장마술 경기방법

- 출발 신호 후 60초 이내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한다.
- 경기는 입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며 종료인사를 함으로써 끝이 난다.
- 기수(선수)가 인사를 할 때에는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한다.
- 말이 눈에 띄게 다리를 저는 경우, 심판장은 다른 두 명의 심판위원들과 협의 후 그 선수를 실권시킬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말이 20초 이상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반항을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된다.
- 선수가 '경로의 실수'를 범하면 심판장이 벨을 울려 경고한다.
- 모든 외부적인 방해(목소리, 표시 등)는 허가받지 않은 도움으로 간주, 심판부의 재량으로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
- 심판원은 실시 번호를 붙인 각 운동 및 종합 관찰점에 0~1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
- 각 심판이 준 득점을 합산, 심판원 수로 나눠 득점을 계산한다.
- 각 선수의 득점을 실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득점에서 평균 득점을 빼고 거기에 0.6을 곱한다.
- 최종 합계 실점은 경로 위반으로 인한 실점과 경기 중 실점을 합하여 계산한다.

장애물 비월(Show jumping)

장애물 비월 경기는 선수와 말이 다양한 조합의 설계 장애물 경로를 비월하는 경기다.
장애물 비월 경기의 경로는 말의 자연스러움, 힘, 기술, 속도, 복종, 그리고 선수의 승마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장애물이 낙하하거나, 말이 비월을 거부하는 경우, 시간이 초과된 경우 등의 실책을 감점 요인으로 한다.

장애물 비월 체크포인트

통상 700~800m 코스에 장애물 13~16개를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보통 벌점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지구력(Endurance)

지구력 종목은 40~100km에 달하는 경로를 완주하는 경기로 말이 거리, 기후, 지형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기수가 출전한 말의 체력 및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통제했는지를 겨루는 경기다. 말의 속도, 지구력, 비월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4개 구간을 연이어 주행한다.

지구력 체크포인트

- 경로를 주파하는 말의 적절한 페이스
- 기록을 결합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주파한 선수와 말이 우승자가 된다. 단, 최종 우승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의검사, 약물관리, 기타 규정 등 말과 선수의 안전 조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종합마술(Eventing)

종합마술은 마장마술, 지구력, 장애물 비월 경기를 3일 동안 실시하는 경기다. 다양한 승마종목 요소가 종합된 경기로 승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장애물 비월 체크포인트

- 다양한 외적 요인(날씨, 지형, 지면 상태 등)에 대한 적응력
- 장애물 비월 기술
- 말과 선수의 상호 신뢰

기타 종목

마차(Driving)

말 1~4두가 한 팀이 되어 마차를 끄는 종목으로 종합마술과 동일하게 장애물, 마장마술 등을 종합적으로 치른다. 가장 오래된 승마경기로 1970년 정식종목으로 인정됐다.

마상체조(Vaulting)

승마 초보가 말의 움직임에 익숙해지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후 스포츠화 되었다. 말이 원형 마장을 구보로 도는 동안 선수가 말의 리듬과 속도에 맞추어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체조 동작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균형감각, 민첩성, 예술성이 요구되며 세계 챔피언십이 2년마다 열린다. 1983년 정식종목으로 인정되었다.

레이닝(Reining)

미국식 마장마술로 알려져 있으며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던 방식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1949년부터 스포츠로 인정됐고 국제승마연맹이 2000년 정식 종목으로 인정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다는 것

영화 <1947 보스톤>

"나라가 독립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기록도 독립이 되어야지!"

광복의 환희도, 새 나라의 기쁨도 채 가라앉지 않은 1947년, 가슴에 자국의 이름을 새기고 달리기까지.

빼앗긴 이름, 되찾은 이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세계 신기록 달성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일본 국기를 달아야 했던 손기정(하정우).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던 그 모습은 한국 스포츠사의 오래된 상처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나라를 되찾았지만 체계도, 형편도, 국제적 승인도 완전하지 않았던 1947년. 선수에서 지도자로 돌아온 손기정은 젊은 마라토너 서윤복(임시완)에게 말한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일본 기록이 지워지고 조선의 기록이 남는다." 무대는 보스턴 마라톤. 공식적으로 일본의 기록으로 남아 있던 자신의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서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여권이 없어요. 재정보증금도 없고요." 해외 출전을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 그들의 염원이 닿았는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이어졌다. "이거 보스턴 가는 비행기 삯이라고 전해주세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세계 무대 출발선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손기정과 서윤복은 보스턴행에 몸을 싣는다.

영화 속 가장 뭉클한 순간은 서윤복이 우여곡절 끝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장면이다. "이걸 달고 뛰는 겁니까?" "그래, 우리 국기를 달고 뛰는 거야." 1947년 4월, 서윤복은 2시간 25분 39초 세계 최고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손기정의 베를린이 '빼앗긴 이름'의 기억이라면, 서윤복의 보스턴은 '되찾은 이름'의 출발이었다.

보스턴에서 밀라노까지

손기정과 서윤복이 지켜낸 태극마크는 이후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가슴에서 빛났다. 2002년 월드컵에서 박지성이 태극마크를 지니고 붉은 악마와 함께 환호하던 순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 여왕에 올라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린 순간,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 아래 태극마크를 달고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는 순간. 이들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 섰고, 그 무게를 알았다.

그리고 2026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79년 전 서윤복이 보스턴 결승선을 통과하며 태극마크를 세계에 각인시킨 그 정신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의 가슴에도 고스란히 새겨졌다. 각자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가슴에 단 태극마크는 그저 단순한 국가 표식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1947년 여권도 없고 국제 무대에 함부로 국기를 달지 못했던 시절, 그럼에도 불굴의 의지로 세계 무대에 섰던 이들의 간절함의 연장선이었다.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스포츠는 단지 기록 경쟁이 아니라, 시대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다는 것은 한 나라가 세계 앞에 서는 방식이며, 체육이 공동체의 자존심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제 무대의 한 장면은 누군가의 간절한 도전 위에서 시작되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난 지금, 코리아를 외치던 수많은 함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는 이유다. 79년 전 보스턴에서, 그리고 얼마 전 밀라노까지. 태극마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뛰고 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9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메달 36개 및 종합득점 524점 기록, 역대 두 번째 최다 득점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이 경기, 서울, 강원, 전북에 이어 19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였다.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월 12일(월)부터 사전경기를 진행하였으며, 2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선수단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6개 종목에 26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사전경기에서 부산은 빙상(쇼트트랙, 스피드)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19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본 대회 첫 금메달은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탄생했다. 클래식 2.5km 여자 초등부의 오신비(광남초) 선수와 클래식 5km 여자 일반부의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두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나란히 대회 4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으며 부산 동계 스포츠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크로스컨트리 남자 중등부 20km 계주에서는 서승민(정관중, 부산협회) 선수를 필두로 한 남중부 부산선발팀이 파란을 일으켰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강원도를 제치고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러한 스키(크로스컨트리) 종목 선전을 바탕으로, 부산은 19년 연속 종합 5위 및 6대 광역시 1위 달성과 더불어 2016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544점) 이후 최고 득점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이래 두 번째 최다 득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9년 연속 종합 순위 5위 및 6대 광역시 중 종합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한 것은 선수단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결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온 선수들과 그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종목단체 관계자 모두가 우리 부산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며,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BSC NEWS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월 11일(수) 아시아드시티 더쉐프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10월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목별 담당관을 임명하고 대회 준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이정민 전국체전기획단장, 부산광역시교육청 서화률 체전지원단장 및 참가 종목별 담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소년체전은 체육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부산 체육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첫걸음"이라며 "종목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체육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종목별 경기장 확정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용기구 구입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께서도 미래의 체육 인재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3일(토)부터 26일(화)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55개소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40개 종목에 1만 8천여 명의 전국 시·도별 대표 선수단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중구체육회

제26차 중구체육회 이사회 및
2026년 중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2월 6일(금) '제26차 중구체육회 이사회'를 부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개의 보고사항과 9개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중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2월 20일(금)에는 '2026년 중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광복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여 5개의 보고사항과 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종목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협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구체육회

2026년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월 25일(수), 서구체육회는 서구청에서 '2026년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서구체육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서구체육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체육 안정 운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를 펼치며 2026년 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지는 등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2026년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2월 20일(금)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체육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6년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동구 체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성장하며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7명의 신임 이사를 위촉하여 더욱 단단한 조직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도구체육회

제7회 영도구탁구협회장배 대회 개최

2월 22일(일), 유남규 탁구체육관에서 '제7회 영도구탁구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되었다. 영도구 관내 클럽 회원 및 탁구 동호인들이 다수 참가하여 경기장은 선수들의 힘찬 구호와 응원으로 활기가 넘쳤으며,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과 더불어 지역 탁구 동호인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2월 23일(월) 서면 월강에서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이사회에는 김석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 전반과 재정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 내 신규 종목 단체 참여 확대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종목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동래구체육회

2026년도 정기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2월 4일(수)에 '2026년도 정기 이사회'를, 2월 25일(수)에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과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정길호 회장은 "2026년에도 스포츠가 구민 여러분께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과 구민 참여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동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구체육회

2026년 남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2월 6일(금)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26년 남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감사보고, 2025년도 이사회비 결산, 공지사항 등의 보고사항이 있었으며,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2월 20일(금)에는 '2026년 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공지사항 등을 보고하고 심의사항을 의결하였다.

북구체육회

2026년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북구체육회는 2월 12일(목)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의장 김성호 북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지외석 사무국장과 대의원 15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등 2건의 보고사항과 심의사항 3건을 상정하였다. 심의 결과,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2026년 제50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2월 3일(화) 개미집 신도시점에서 해운대구체육회 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과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결과 등 8건의 주요 사항이 보고되었고, 8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후 해운대구체육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최종 담화를 끝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사하구체육회

2026년도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사하구체육회는 2월 20일(금)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사하구 체육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는 부회장과 이사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배지 전달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본 회의에서는 2026년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회장 및 임원진은 사하구체육회가 나아갈 방향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사하구체육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연제구체육회

2026년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2월 2일(월) 연제구청에서 '2026년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 현황 보고,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사무국 운영 규정 전부 개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월 9일(월)에는 '2026년도 연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 현황 보고, 202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수영구체육회는 2월 26일(목) 수영구체육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체육 발전과 조직의 내실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수영구체육회는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제1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2월 4일(수) '제1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규정 개정 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심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 개정 심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심의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변화하는 체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심의된 사항은 이사회 보고 후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강서구체육회

2026년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강서구체육회는 2월 25일(수) 강서구청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자의 성원 보고와 의장의 개회 선언과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에 가입한 단체 가입증, 회장 인준서 수여에 이어 의장의 개회사, 구청장의 축사를 끝으로 개회식을 마쳤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 4건과 심의·의결 안건 2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으며 기타 안건 토의와 공지사항 안내 등이 진행된 후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사상구체육회

2026년 제1회 정기 이사회 및 신년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2월 국제식품에서 '2026년 제1회 정기 이사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정기 이사회에는 사상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주요 사업 추진 결과 공유, 체육회 규정 개정 심의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어 열린 신년회에는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상구 체육인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장군체육회

2026년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2월 11일(수) 기장군청에서 '2026년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장단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업결과가 보고 됐다. 안건으로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승인, 2026년 추경 사업 및 세입·세출 회장 위임, 2026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계획 승인,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준회원단체 가입 승인 등 7안이 올랐고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제23회 꿈나무체능단 졸업식 개최

지난 13일, 부산국민체육센터 문화관에서 꿈나무체능단 7세 졸업생 12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생들은 정들었던 체능단을 마무리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체능단에서의 재미난 기억을 회상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참석한 단원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졸업식은 체능단원들이 즐거웠던 추억을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한발 내딛는 순간이었다.

한편, 23년간 운영했던 꿈나무체능단은 이번 졸업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체능단 교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02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레인 로프 교체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최근 노후화된 수영장 레인 로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새롭게 설치된 레인 로프는 내구성이 강화된 소재를 사용해 파손 위험을 줄였으며, 회원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이번 레인 교체를 통해 수영장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03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6년 설 연휴 기간 테니스장 운영

설 당일을 제외한 설 연휴 양일간(2월 16일, 18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개장·운영하였다.

이번 테니스장 개장으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류와 스포츠 복지 및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까지 기대된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04 부산실내빙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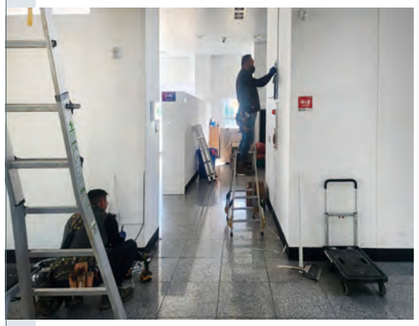
'새해 복(福) 나눔 이벤트' 진행

부산실내빙상장은 2월 15일(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새해 복(福)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벤트를 통해 빙상장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전통 간식을 나눠주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며 시설 이용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빙상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05 신평장림체육관



체육관 내부 화재 감지기 점검 및 추가 설치

신평장림체육관은 지난 2월 체육관 내부 화재 감지기 점검 및 추가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 화재 감지기의 교체 및 정밀 점검을 통해 회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에 없던 화재경보기를 신규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내부 안전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습한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던 구간을 집중 점검·개선하여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 감지기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체육관 내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06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시범운영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및 샤워실 리모델링, 스튜디오 환경개선, 탈의실 바닥 교체 등 7개월간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시설 안전성과 이용 환경을 한층 강화했다.

센터는 정식 개관에 앞서 3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이틀간 수영장과 헬스장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식 개관은 4월 1일(수)이다. 회원 접수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1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026년 전문선수 출정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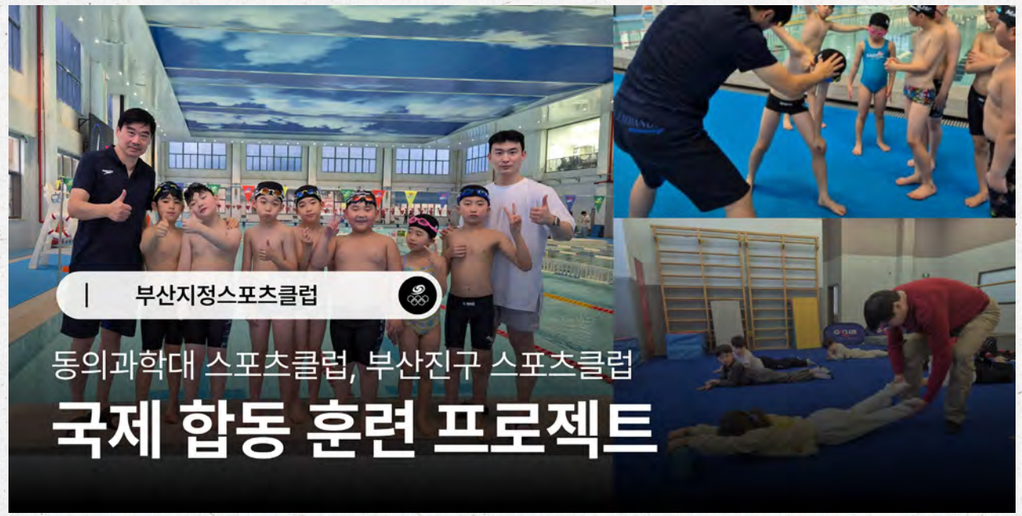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지난 25일 동의과학대학교 석당문화관 체육관에서 '2026 전문선수 출정식'을 개최하고 전국 대회 상위권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출정식은 부산 지역 지정스포츠클럽 가운데 최초로 수영,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등 4개 종목 전문선수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체계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자리로, 대학 기반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선수 육성과 공공 스포츠 모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2025년 전국 및 권역 대회에서 종목별 입상과 기록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기반 전문선수 육성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은 "지난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인 훈련과 관리 체계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과 팀워크를 갖춘 선수를 육성하겠다"며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2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부산진구스포츠클럽, 중국 상해 합동훈련 통해 국제 교류 확대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과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2월 3일(화)부터 7일(토)까지 중국 상해에서 국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간 협력 기반 국제 교류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 상해 소재 상해소년아동체육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임원 3명, 지도자 2명, 선수 7명 등 총 12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상해 우수 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선진 기술과 전술 운영 방식을 경험하며 경기 적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부산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 및 전국 규모 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한 전략적 훈련으로, 국제 경쟁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는 선수 훈련뿐 아니라 지도자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상해 측 훈련 지도 체계와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공유받으며 학교 운동부 운영 전문성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기획–선발–훈련–국제 교류까지 공동 추진하여 지역 스포츠클럽이 주도하는 국제 교류 사례를 만들었다. 양 기관은 향후 정례 합동훈련과 지도자 교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고대에는 주로 문명의 발생지에서 발달했으며 그리스인이 최초로 시작한 이 종목은 귀족 스포츠로 성행하다 근대 스포츠로 발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말(馬)과 함께 참가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자전거 ② 수영 ③ 승마

2 지난 2월에 개최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 선수들을 1m 이내로 따라가 촬영함으로써 현장감을 전달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① 비디오 판독 ② 1인칭 드론 중계 ③ AI 심판보조

3 ○○갈매기 씨름단은 1999년 처음 창단되었다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을 거쳐 2026년에 ○○군에서 재창단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지명은 무엇일까요?

① 기장 ② 영도 ③ 동래

『부산체육』 제87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③ 크로스컨트리스키 2. ① 컬링 3. ③ e-스포츠

당첨자

박○희(4504) **송○수**(2223) **이○재**(5648) **윤○아**(7056) **박○영**(3449)
김○미(5649) **정○율**(4477) **박○미**(3435) **함○예**(5135) **김○경**(7570)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수천 년 시간을 건너온 가장 우아한 교감, ○○

<종목 소개> 38쪽

2 힌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집관(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직관처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도입된 FPV(First-person View) ○○○ ○○ ○○ 덕분이다.

<스포츠 & 테크놀로지> 26쪽

3 힌트 ○○갈매기 씨름단은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씨름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빛 훈련일지> 11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3.16.(월)~3.31.(화)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9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왕자

어린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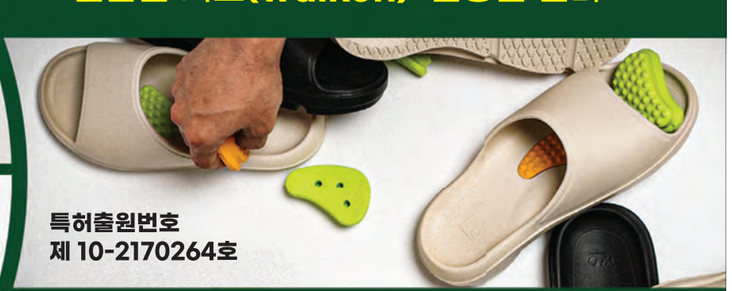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REUSHION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바렐 전기 아연
아연니켈 합금
표면처리 전문업체

Electrical Barrel Zinc
Znic-Nickel Alloy Plating

SQ인증서

IATF16949

뿌리기술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메인비즈 확인서

동아플레이팅(주)
DONG A Plating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 20
부산청정도금센터 101, 107, 108, 111호
전화 | 051-263-2170 팩스 | 051-972-2173
E-mail | donga1089@dongaplating.com
http://www.dongaplating.com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